

여수공항, 지난해 항공 교통량 증가

1만 4302대 기록 전년보다 1.3% ↑...국내선 감소 추세와 대조적 시, 활주로 2100m→3200m 확충...국제공항 승격 추진 본격화

지난해 여수공항 항공교통량이 전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5년 항공 교통량 집계'에 따르면 전국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 100만 대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국제선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으나 국내선은 1.6% 감소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여수공항은 지난해 총 1만 4302대, 일 평균 39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국내선 중심의 공항임에도 전국

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역 거점공항으로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가 취항해 김포·제주 2개 국내선 노선을 운항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국제선 교통량이 빠르게 회복·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수공항은 정책적·시설적 한계로 인해 국제선을 취항이 불가능해 수요 증가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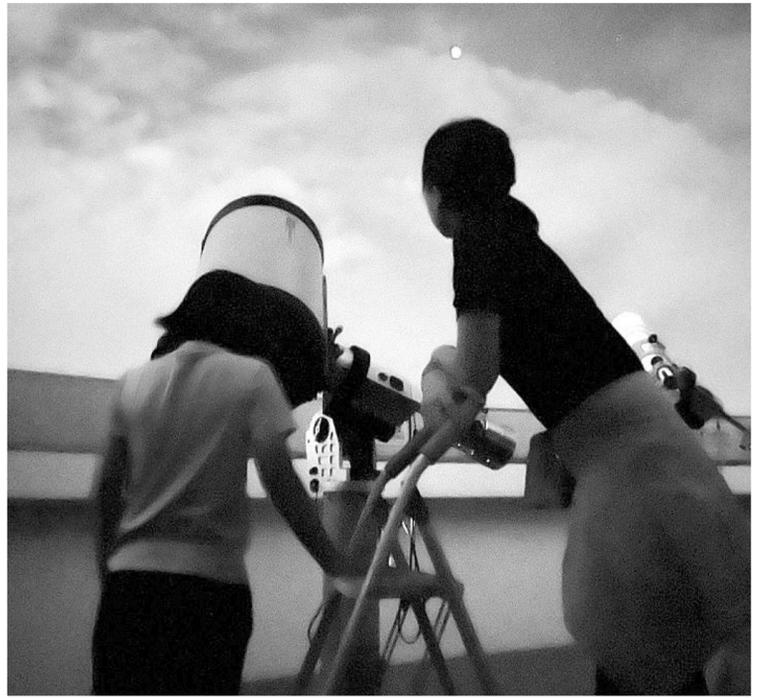
이에 여수시는 글로벌 항공 수요의 증장기 성장

흐름에 대응하고자 현행 2100m 활주로를 3200m로 확충하고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내 항공시장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선 안정화와 국제공항 승격 추진을 통해 남해안 거점공항으로도 약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여수공항의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콘크리트 둔덕 철거 및 방위각 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조류탐지레이더 설치와 중단안전구역 확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만천문대에서 고성능 천체망원경으로 월식을 관측하고 있다.

순천만에서 우주의 신비 만끽

순천만천문대, 3월 3일 개기월식 행사...시민 관측 프로그램 개최

오는 3월 3일 밤, 순천만의 하늘이 신비로운 붉은빛으로 물든다. 순천만천문대가 이날 발생하는 '개기월식' 맞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특별 관측 및 교육 프로그램인 '2026 Red Moon: 순천만의 붉은 밤'을 개최한다.

이번 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며 평소보다 어둡고 붉게 변하는 '블러드 문(Blood Moon)'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순천만천문대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고 광공해가 적어, 전남 지역에서 월식 전 과정을 가장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

행사는 오후 6시 30분, 전문가의 특강 '달이 숨바꼭질하는 이유'로 문을 연다. 월식이 일어나는

과학적 원리와 함께 이번 월식이 갖는 천문학적 의미를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천문대 옥상 관측실에서 고성능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본격적인 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서서히 가려지는 순간부터 붉게 물드는 개기월식까지의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다.

또 붉은 달을 배경으로 참가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부랴부랴 대보름 소원 빌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마련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블루베리' 울 첫 출하 포문

가온재배 통해 2~3월 조기 수확...주산지 입지 강화

곡성군이 고달면 목동리에 소재한 농가에서 올해 첫 블루베리를 수확하며 올해 블루베리 조기 출하의 포문을 열었다.

블루베리는 일반적으로 6월부터 수확되는 노지 작목이지만, 곡성군은 시설 가온재배를 통해 2~3월에 조기 수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선한 블루베리를 빠르게 만날 수 있고, 농가는 조기 출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블루베리 특등급(1kg) 도매가격은 8만원으로 형성돼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첫 출하를 통해 곡성 블루베리의 조기 출하 경쟁력을 보여줬다. 특히 공선출하 체계 정착에 앞장서며 산지 조직화와 공동 브랜드 경쟁력 강화

에도 기여하고 있다.

곡성군 블루베리 산업의 성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육성 정책과 현장 중심 기술 지원, 그리고 곡성농협의 적극적인 유통 협력과 판로 확대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다. 재배면적은 2017년 20ha에서 2025년 38ha로 확대됐고, 출하량은 110t에서 280t, 생산액은 26억 원에서 72억원으로 증가하며 지역 대표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곡성농협은 공선출하 물량의 안정적 수집·선별과 대형 유통업체 납품 확대를 통해 출하 기반을 강화하며 산지 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블루베리는 곡성의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기술력과 조직화를 바탕으로 생산과 유통 경쟁력을 더욱 높여 대한민국 대표 블루베리 산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학업 걱정일랑 잠시 접고 '노라야재'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놀이문화공간 다음 달 2일 개관

광양의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인 '노라야재'가 다음 달 2일 개관식을 갖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노라야재'는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내 기존 수영장 공간(1053.29㎡)의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휴식·문화·체험 기능이 결합된 복합 놀이공간이다.

리모델링 사업에는 총 30억9500만원이 투입됐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관리는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위탁 수행한다.

해당 시설은 2022년부터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와 현장 소통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휴식 기능을 강화한 상부공간과 체험 활동 중심의 하부공간으로 구분해 구성했으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하부공간에는 K-POP 스튜디오와 XR 스

포츠 체험공간을 배치했다. K-POP 스튜디오는 청소년들이 춤과 음악을 연습하며 자기표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고, XR 스포츠 체험공간은 가상현실 기반의 신체활동 콘텐츠를 통해 놀이와 운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파티룸 등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해 또래 간 소통과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노라야재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 문화를 경험하며 또래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소년 전용 공간"이라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라야재'는 청소년 대상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놀어야재'를 친근하고 재치 있게 표현한 이름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C형간염 조기 발견·치료

고흥군, 다음달까지 무료 항체검사

고흥군이 C형간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동일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3월 말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를 추진한다.

20세 이상 주민 약 9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되면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형간염은 주로 오염된 혈액이나 주사바늘, 면도기 공동 사용, 문신, 침술 등 비위생적인 침습 행위로 감염된다. 예방백신이 없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다만, 조기에 발견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99% 완치할 수 있다.

특히 고흥군은 중위소득 130% 이하인 확진자에게 외래진료비와 최대 330만 원 상당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군, 통합특별시 행정 대응 TF 가동

보성군이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특별시 TF 추진단'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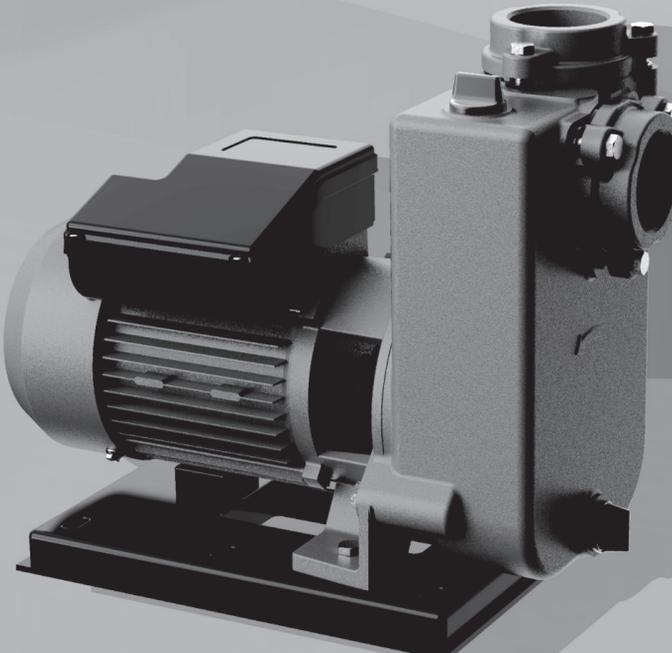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이번 추진단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통합이 군의 행정·재정·산업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재정·특구 특례 법안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통합 과정에서 보성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확대와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TF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부서장이 참여하는 범부서 협업 체계로 운영되며 ▲행정·문화관광, ▲복지·교육, ▲지역개발·환경, ▲농림·수산 등 4개 핵심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군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주요 역점 사업과 연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통합 이후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군은 통합 논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 간 불균형이나 소외 계층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